

##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서’

### 열왕기 상 19장 4절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オス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 p. 14-5]에 보면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기 전 이집트의 자이툰 부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해요”라는 아내의 물음에 챔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챔버스의 신앙은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 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해 성지순례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행이 ‘텔 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굽이쳐 내려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한참을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가에 다다르게 되는데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던 분의 말에 따르면,

바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물이 다 말라버린 위기에 직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죠.

이유인즉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방문시기가 묘하게도 이스라엘 우기와 겹쳐지는 때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비가오지 않게 해 주소서.”

그 결과로 갈릴 리가 다 마르게 되었다고 말이죠.

2017년 이스라엘은 100년 만의 기근으로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고 있었고, 시상청의 예보로도 앞으로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를 내 놓았습니다.

그 때 농림부장관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진 회당에 편지를 보내 비가 오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해 12월 28일 새해를 앞두고 랍비들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대대적인 기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월 1일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헬몬산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가뭄 해갈이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였던 장면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했던 가뭄과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해갈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완성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엘리야에게는 아주 부적절한 말처럼 들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메시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오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디셉사람’이라는 말이죠. 열왕기 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로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럼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셉’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요르단 동쪽 길로앗에 가면 산지 작은 마을이 바로 디셉입니다. 그의 가문이 별 볼일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족보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듣보잡’입니다. 그런데 그가 혜성처럼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어느 날 죽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에 대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도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며,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를 경험한 것도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산 정상에서 각을 뜯 송아지 제단에 물을 뿌리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33-35절.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흥미로운 것은 불이 임하고서야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가득 채우고서도 모든 번제물을 깡그리 태워버린 완벽한 승리, 그리고 7번씩 옆드려 기도하므로 3년의 가뭄이 해결되는 완벽한 응답.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결과에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가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흔적이 사라져 버린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잘 구별이 되지만 브엘세바 아래로는 네게브 사막이 있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느냐는 것이죠.  
이세벨이 북 이스라엘 사람이니, 유대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만 갔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쯤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혼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라는 말처럼, 죽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귀나 낙타를 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갔으니, 먹을 만한 양식이나 물도 가지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자살’을 생각한 것이죠.

지난 해 박원순시장이 산에 올라가 자살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시장이 오전에 집을 나와 혼자 산에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목숨을 끊기 전에 산에 홀로 있었던 시간동안에 살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간절함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은 자신의 삶을 훨씬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환경보다 더욱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침체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생명력은 로뎀나무아래서 하나님께 푸념하며 앓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체념의 순

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C.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 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므로 -이라는 뜻입니다. . .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안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가정을 합니다.

어쩌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이죠. 물론 우울증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동기가 있겠죠.

엘리야에게서는 자신의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갈멜산에서 기도 했을까요? 목숨을 건 영적 승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가운데 찾아온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 은혜의 그늘은 어디에도 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되는 광야를 걸었을 때쯤, 아니 그가 지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때 '로뎀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는 죽으려는 마음으로 광야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신이 지친 가운데 광야 한 가운데 서 있던 로뎀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로뎀나무가 엘리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의 침체 가운데 로뎀나무를 만나게 된 것이죠. 혹시 로뎀나무를 보셨나요?

아마도 아래 사진이 오늘 엘리야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그림 일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는 영어성경에 보면 'whit bloom'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생 싸리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니 어쩌면 오른쪽 사진보다는 왼쪽 사진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사실 사막 한 가운데서 만나는 그늘이란 무성한 나뭇잎에 의해 만들어진 풍성함이 아니라, 앙



상한 가지의 그늘도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은 그늘이 그에게 위안이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에 머물러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상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면, 아주 작은 그늘 아래서 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작은 그늘 아래에 누워 엘리야가 잠을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충분한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을 얻고 엘리야가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거기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의 영적 침체가 사명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끓지 아니한 자 칠 천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엘리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

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놀라운 책을 집필한 그의 사역 가운데 찾아왔던 4년간의 기간을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두운 영혼의 밤”이라 불리는 4년간의 시간은 챔버스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하던 시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림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일기책에는 그 4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4년 동안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셨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주님과의 의식적인 소통이 없었다. 성경은 가장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었으며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사악함과 나쁜 동기들은 지독하게 심각했다.”

사람들의 눈에 챔버스의 사역은 놀랍도록 형통하게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가장 화려한 그의 사역의 승리가 그의 영혼의 침체기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챔버스를 치켜세우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하던 엘리야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영적 침체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짓눌렸던 무게가 한 번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숲속에서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렸다면, 그것은 종이장 보다도 더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해졌을 때입니다. 사실은 눈송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짓눌렸던 무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했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혼자 싸워야 했던 엘리야의 짐이 무척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이겨도 끝이 없는 싸움에 이세벨의 협박이 결정적인 무게를 더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한 위로였을 것 같습 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영적 침체의 광야에서 로뎀나무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이끌어 갑니다.

침체의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친구였던 조지 옥서는 챔버스가 지나야 했던 영적침체의 시간들과 고난의

순간들, 그의 꿈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는 데는 일반적으로 자신만 아는 숨겨진 배경들이 있습니다.

‘네’라는 확답은 순간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지만 그 대답이 있기까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기는 챔버스의 ‘성령 충만’은 그 친구의 ‘어려움의 기간들’과 연결됩니다. 나는 챔버스가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들을 격려하며 바르게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의 깊이는 산의 높이와 비례합니다. 챔버스는 자신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 멀고 험한 광야를 외롭게 달려야 했고. . . “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를 이해 하려면 어쩌면 그가 지나야 했던 ‘영적 침체의 광야’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엘리야는 죽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호렙산에 가기 위해 광야에 들어 왔을까요?

로뎀나무아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한 것은, 단지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힘을 주시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는 일이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침체의 광야에서 ‘로뎀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를 만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쉬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늘이라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 누우라는 것입니다.

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쉴 때가 되면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커다란 권력과 주변의 아우성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에게 다가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일어서면 영영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를 일입니다.